

주관절 문제를 가진 운동 선수에 대한 관절경적 처치

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문영래, 유재원

서 론

운동 선수 특히 상지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운동시 동통을 수반하는 주관절 강직을 경험할 수 있다. 본 교실에서는 주관절 문제를 가진 환자에서 관절경 술식을 시행하여 병변을 발견하고 관절경적 처치를 시행한 후 그 경과와 예후 및 특히 운동능력의 보전 및 회복을 판정하여 치료의 유의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.

재료 및 방법

1996년 10월부터 2000년 1월 동안 내원한 운동 선수에서 주관절 운동시 동통 또는 강직을 수반하여 운동능력의 상실을 보이는 13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관절의 동통 및 운동 제한을 일차적인 증상으로 여기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, 환자의 평균 연령은 21.2세였다.

주관절 운동이 기능적으로 제한이 있으며 최소한 6개월동안 물리치료 및 다른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, 증상발현 후부터 수술시까지의 기간은 최소 2 개월에서 최장 16 개월로 다양한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. 발견된 병변에 따라 유리체 제거술, 구축된 관절낭 유리술, 골극 제거술등을 시행하였다.

모든 환자는 본 정형외과 교실에서 측정되었으며, 계속된 외래 추시관찰과 설문지로 환자의 증상을 추시 관찰하였다.

결 과

수술시 전례에서 중등도 이상의 활액막염을 관찰할 수 있었고 그의 발견된 병변은 관절 내 유리체 9례, 2례에서 주두 및 구상돌기 골극이 관찰되었다. 전례에서 관절운동 범위의 호전 및 운동시 동통이 경감되는 상태를 보였고,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았다. 10례에서 원래의 위치에 복귀하였지만, 이중 7례에서는 발병전 상태보다는 운동 수행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관찰할 수 있었고 남은 3례의 경우는 발병전 상태로 회복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.

결 론

운동 선수에서 주관절 동통과 강직을 동반한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경을 이용한 처치를 시행하는 것은 병변의 정확한 평가가 용이하며 수술 후 관절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여, 빠른 조기 재활이 가능한 효과적인 술식 중 한 방법으로 사료되었다.

•